

---

#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,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-

---

2024. 3.



해양수산부

# 순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-------------------	---

II.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I. 추진성과와 평가

### 1 주요 정책 성과

- (**민생지원 강화**) 사회적약자,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대
    - 전체어가의 35%인 영세어가(1.6만호)와 어선원(7천명)에 신규 직불금 지원
    - 교통 소외도서 10개 여객 운항 지원, 섬 주민 택배비 신규 지원
    -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승선기간 단축, 비과세 한도 확대\*

\* 외항선·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급여 : (현행)월 300만원 → (확대)월 500만원
  - (**해역·수산물 안전**) 日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바다·수산물 안전 확인
    - 철저한 안전관리로 오염수 방류 후 부적합 해역·수산물 미검출
    - 선제적 소비활성화 지원으로 오염수 방류 후에도 수산물 소비 안정

\* 과거 일본의 오염수 유출 인정('13.7) 이후 수산물 소비 최대 22% 감소 사례와 대비

  - 일일브리핑(부처 합동), 네이버·카카오 등 연계 적극적 대국민 소통
- (**역동경제 기반**) 역동적 해양·수산업 육성을 위한 개혁과제 발굴
  - 어업 규제혁신 등 선진화 대책 마련('23.9)으로 수산업 지속가능성 제고
  - 자율운항선박법 제정, 해양모빌리티 대책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
  -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도, 역대 최초로 '김' 수출 1조원 돌파(7.9억불)

### 2 개선 필요사항

- (**어촌·수산업 활력**) 어촌 인프라 개선 등에도 불구, 어촌소멸 지속
    - \* 어촌지역 491개 중 58% "소멸위험지역", '45년 약 87% "소멸고위험지역" 전망
    - 수산업의 높은 진입장벽, 자원 고갈 등으로 생산기반 악화
- ⇒ 어촌·수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및 지원대책 마련 필요

## Ⅱ.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 추진 여건

- (**수산업**) 공급 불확실성 확대, 수산물 수요 위축 등 지속가능성 위협
  -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영향 수산물 생산 감소, 높은 수산물 물가 지속
  - 국내적으로 수산업 경영비용 증가, 수산식품 소비 감소
    - \* 식료품 지출 중 수산식품 비중(통계청, %) : <sup>(10)</sup>12.5% → <sup>(20)</sup>10.8% → <sup>(21)</sup>10.6% → <sup>(22)</sup>10.2%
    -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·소비자 불안도 일부 상존
- ⇒ 물가·안전관리 강화 및 생산기반 제고를 위한 수산업 혁신 필요
- (**수출입물류**) 교역은 개선, 물류 불확실성과 항만 간 경쟁은 심화
  - 세계 교역은 소폭 개선 전망, 신흥시장 교역 비중 지속 확대
    - \* '24년 교역 3.5% 성장(IMF) / '23년 수출 확대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신흥시장(대한상의)
    - 홍해사태, 파나마운하 통행량 제한 등으로 물류 불확실성 지속
  -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항만 간 경쟁 심화, 부산항 생산성은 여전히 열위
    - \* '22년 기준, 부산항 선석 생산성은 세계 26위로 중국 등 경쟁국 대비 낮은 상황(KMI)
- ⇒ 해상수송망 다각화, 스마트메가포트 조성 등 물류경쟁력 혁신 필요
- (**연안·어촌**)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,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
  - 전 세계적으로 해양레저·신산업 확대\* 등 산업 성장 가능성 충분
    - \*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시장의 50%(UNWTO) / 세계 해양신산업 규모 '30년까지 2배 성장 전망(GIA)
  - 국내 연안·어촌은 열악한 생활 인프라, 낮은 삶의 질 만족도\*,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한 재해·재난 위험 증가 등 정주 여건 취약
    - \* 삶의 질 만족도 : 도시(6.4) > 농촌(5.2) > 어촌(4.9) > 섬지역(3.8)
- ⇒ 레저·신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제고,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

## 2 업무 추진 방향

정책  
비전

국민에게 **힘**이 되는 **바다**, **경제**에 **기여**하는 **해양수산**

방향

민생 안정 / 역동 경제 / 균형 발전

정  
책  
과  
제

###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

- ① [안심 식탁] 수산물 물가 안정, 방사능 관리 강화
- ② [어업인·어촌] 어업인 경영 안정, 어촌 정주여건 개선
- ③ [환경·안전] 깨끗하고, 사고·재해 없는 바다 구현

###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

- ④ [물류 혁신]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,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  
사각지대 없는 수송망, 해양모빌리티 선도국 도약
- ⑤ [수산 혁신] 수산업 생산구조 혁신 → 미래세대에 기회 제공  
수산식품 수출<sup>+</sup> 전환, 유통구조 개편

###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

- ⑥ [지방시대] 권역별 레저거점,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활력 제고
- ⑦ [글 로 벌] 국제사회 기여 확대, 해양영토·어업 주권 확립

### Ⅲ. 2024년 핵심 추진과제

#### ① [민생+] 국민 안심 · 안전 식탁 조성

##### □ 『수산물 물가』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.

- 수급 상황에 따라 선제·종합적 조치로 물가 안정, 소비 확대 지원
  - 국민 선호 품목(오징어·고등어 등) 정부 확보 물량 확대 및 적기 공급
    - \* 정부 비축 규모 : <sup>(23)</sup>3.2만톤(예산 1,750억원) → <sup>(24)</sup>4.4만톤(예산 2,065억원)
  - 공급 부족 품목은 관세 인하·면제 등을 통해 신속 공급 지원
  - 수산물 50% 할인행사 매월 시행,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확대

**수혜자 혜택** 수산물 50% 할인행사, '24년부터 '대형마트' 외에 '동네마트'에서도 실시

- 품목별 수급·가격 예측모형 개발\* 및 조기경보시스템\*\*으로 고도화
  - \* ('24) 고등어·갈치·오징어 / \*\* 품목별 수급 전망 기반,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

##### □ 『해역·수산물 방사능 안전』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.

- 국내 쏠 해역과 우리 해역 밖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
  - 국내 해역은 모니터링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확대
  - 공해상은 오염수 유입 경로인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을 조사
    - \*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 / 태도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
- 수산물은 생산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검사 실시, 검사 건수 1.5배\* 확대
  - \*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 : <sup>(23년)</sup>12,012건 → <sup>(24년)</sup>18,000건 이상

**달라지는 점**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\*, '24년부터는 '개인' 외에 '업·단체'도 신청 가능  
\*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 신청 → 정부가 검사 후 결과 공표

- 수입 수산물은 취급 업체에 대해 상시·특별(연 7회) 원산지 단속

## ② [생활+] 어업인, 어촌·섬 주민의 생활 안정

### □ 『어업인 경영 지원』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-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어업인 경영 여건 개선
    -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 확대 및 어업인·법인별 용자 한도 상향
      - \* (정책자금 규모) (기존)3.4조원 → (‘24년)4.1조원 / (용자한도) 일괄 5억원씩 상향
- 수혜자 혜택** 어업인 용자한도 10 → 15억원, 어업법인 용자한도 15 → 20억원
- 양식어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(3→5천만원)하여 실질소득 제고
  - 전기료·유류세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 비용 절감
    - 양식어업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보조 지원(가구당 최대 44만원)
    -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 시,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(‘24, 45억원)
  - 전체 어가의 30% 이상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인상\*
    - \*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: (기존)연 120만원 → (‘24년)130만원
  -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‘수산직불금 개편방안’ 마련(‘24.2분기)

### □ 『어촌·도서 주민의 안정적 삶』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어촌 소멸 획기적 개선을 위한 ‘어촌·연안 활력 종합대책’ 수립(‘24.上)
  -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어촌·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 추진
  -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, 음식점 등 민간개발 허용 법적근거 마련(‘24)
- 민간투자 연계, 100개 어촌에 경제·생활 인프라 신규 조성(65개 설계, 35개 선정)
  - 어촌 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
    - \* 지자체가 어촌 인프라 개선 우선순위 선정 → 우선순위 고려, 차등 지원
-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, 도서의 교통권 및 생활물류 지원 확대
  - 찾아가는 어복(어촌복지)버스, 마을단위 비대면 섬 닥터 시범사업 추진
  - 교통소외도서 여객 지원 확대(10→20개), 섬 택배비 연중 지원

### 3 [환경<sup>+</sup> · 안전<sup>+</sup>] 깨끗하고, 재해 · 사고 없는 바다

#### □ 『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』를 물려주겠습니다.

- 해양쓰레기 마이너스 전환을 위해 발생원 저감, 수거량 대폭 확대
  - 그물 등 어업 도구의 해양투기 차단을 위해 어구보증금제\* 시행
    - \* 어업인이 어업도구 구입 시 보증금 납부 → 사용후 반납시 보증금 환급
  -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(연 14.5만톤, 추정)보다 많은 양을 수거(15.5만톤 목표)
    - \* 무인도서, 테트라포트 등 사각지대 방치쓰레기 수거 강화
-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1천km<sup>2</sup> 이상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
- 해양기후변화 전담조직 운영('24.1~), 해양·극지 기후대응전략 수립('24.下)

#### □ 『재해·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』를 구현하겠습니다.

- 해양사고 인명피해 50% 저감\*을 위해 현장 지원 및 안전시스템 강화
  - \* 사망·실종자 50% 저감 : '17~'21년 평균 118명 → '27년 59명
  - 구명조끼 무상보급 확대(1·2인 선박), 해운사 안전투자 공시제도\* 시범운영
    - \* 여객선·위험물 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비용 공시를 통해 자발적 투자환경 조성
- 사고·재해 빈도가 높은 해안가·항만 등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
  - 연안재해 근본적 저감을 위해 국민안심해안\* 20개소 신규 지정 추진
    - \*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해안가 지역을 국가가 매입 → 완충공간으로 조성
  -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항만 재해 예방 인프라 보강\*
    - \*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, 방호벽 설치 등 침수 취약지구 정비(39개항 65개소, '24~)
  -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잦은 구역에 안전 표지판·표지선 의무 설치
- 세월호사고 10년,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선 안전 대폭 강화
  - 고위험 여객선 집중점검, 전기차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 지침 보완



#### 4 [수출물류\*] 세계 최고 물류서비스로 수출경제 견인

##### □ 『스마트 메가포트』로 항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.

- 완성되는 부산항신항, 시작되는 진해신항 중심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(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 수립, '24.上)

\* 최대 3만TEU급 초대형선박(現 세계최대 규모 2.4만TEU급)이 상시 입출항 가능한 스마트항만

- 우선, 부산항신항(2-5단계)에는 국내 최초로 항만 내 모든 작업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 개장('24.3월)

**수혜자 혜택** '24시간 멈춤 없는 항만' 실현, 기존 항만 대비 물류생산성 20% 향상 기대

- 진해신항은 방파제 등 외곽시설 착공('24.下 → '29년 개장 목표)
-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우리 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 개발
  - \* 기반시설 구축('24~) 및 장비 도입(~'26) → 1단계 개장('27)
- 권역별 배후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특화항만 차질없이 개발
  - \* (부산·경남) 동북아물류 허브 / (서해) 對中 교역 / (동해) 에너지오일 / (제주권) 해양관광
- 부산항 모든 터미널에 전자식 화물 인수도중 전면 도입('24.1~), 인천신항 무인전산화 CFS\* 구축 등 항만 내 디지털 전환 지원
  - \* Container Freight Station, 컨테이너와 화주 간 화물을 분배하는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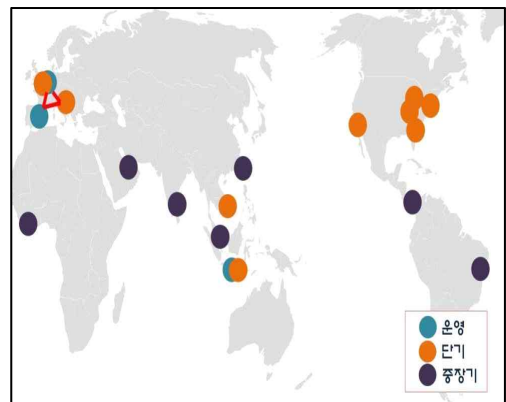
##### □ 『글로벌 물류 네트워크』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.

- 미주 지역, 민(CJ 등)·관 협작을 통해 항만-내륙 물류센터 4개소 신규 확보

\* LA('24.下 운영), 뉴욕·시카고 착공('24.上)

- 유럽 지역, 기존 남·서유럽과 함께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 구축

\* (남)바르셀로나, (서)로테르담, (동) 크로아티아 등



- 신흥시장, 베트남 물류센터 개시('24.下) <글로벌 물류거점 진출 계획>

□ 『세계 4번째, 해상수송력 1억톤』,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국적선사 해상수송력 지속 확충, 주력 및 신흥시장 수송망 다각화
  -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(1.3만 TEU, HMM) 신규 투입('24.2월~)
  - \* 기존 보유 수송력 9,927만톤에 더해 '24년 1억톤 달성 전망  
(국가별 순위(DWT) : ①그리스(4.2억톤) ②중국(3.7억톤) ③일본(2.5억톤) ④한국(1억톤 ↑))
  - 핵심 항로 대형선 투입, 인도·지중해 등 신흥·유망 항로 신설 지원
-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 대비,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
  - 중소기업 전용 선박 지원기간 연장(~'24.6월), 민관합동 비상대응반 운영
-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 2배 확대(2,500→5,000억원)

□ 세계를 선도하는 『해양모빌리티 강국』으로 도약합니다.

- 친환경선박 전환율 20%(現 14%)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패키지 지원\*
  - \* 취득세 감면(신규), 보조금(선가의 최대 30%), 대출금리 우대, 설비 설치비 지원 등
  - 글로벌 친환경선박 선도국 도약을 위해, 녹색해운항로 구축\* 확대
    - \* 한-미 녹색해운항로('28년 시범운항)에 이어, 덴마크·호주·싱가폴 항로 신규 구축 추진
  -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\* 추진
    - \* 초대형 '컨'선 그린메탄올 실증('24.1월, 울산항), LNG 벙커링 실증('24.上, 부산항)
- 디지털선박 시대 본격 개막, 공공 개발 자율운항선박 최초 운항 개시\*
  - \* 민간 1,800 TEU 신조 컨테이너선을 통해 한-중-일 국제항로 운항('24.下)
- 해양교통 안전·편의 제고를 위해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
  - 초고속 통신망 등을 통해 오차범위 5cm 이내 선박위치정보 제공('24)
  - 바다내비 오픈플랫폼 전환, 음성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('24~)
  - 선박 밀집해역 정보 디지털화 및 대국민 제공 추진('24~)

## 5 [수산업+] 혁신 · 개방으로 수산업의 미래수출산업화

### □ 생산-① : 규제혁신·디지털화로 『어업 혁신』을 이루겠습니다.

- 금어기·금지체장, 어구·어법 등 과도·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철폐

#### 수혜자 혜택

'24년, 어선 검사기준 완화, 곰소만·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등  
어업규제 120건 이상 개선 → 연간 800억원 이상 비용 저감 효과

- 전체 어획량 대비 50%를 TAC로 관리 → '27년 이후 100% 관리
  - 어선 위치·어획량 감시체계 구축, 어획증명제 도입 등 모니터링 강화  
(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정, '24.上 목표)
  - 어선 간 할당량 거래제(ITQ) 시행을 위한 도입방안 마련('24.上)
- 어선 매입, 임대·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시범사업 추진  
→ 어선은행을 통해 청년 등 신규 진입자 대상 어선 중개 지원
- 모바일허가증 도입, 어장 플랫폼 구축\* 등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 
\* 디지털 어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('24.下) → 시기·어장별 어장정보 구축제공

### □ 생산-② : 스마트화·개방으로 『양식업 혁신』을 이루겠습니다.

- 권역별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준공\*으로 60조원 연어 시장 진출
  - \* 부산('24.2, 연어), 강릉·양양('24.12, 연어) → 이후 타 품목(새우 등) 클러스터 준공
  - 클러스터 기반, 양식 데이터 축적·분석·활용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(~'25)
- 양식면허 심사·평가제\* 시행('25) 대비, 관련 법령·기준 등 정비
  - \* 관행적 재면허→어장청소 등 종합평가 후 재면허 / 평가항목 구체화,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 등('24)
- 양식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 인력에게 양식장 임대('24년, 10개)

#### 수혜자 혜택

양식장 확보, 임대료 50%(개소당 연 2,750만원) 지원을 통해 초기 부담 완화

- 내수면양식 육성을 위해 내륙권 유통센터 및 아쿠아포닉스 준공('24.6, 용인)

□ **K-블루푸드 『1억불 수출품목을 6종으로 확대』하겠습니다.**

- 수산식품 수출<sup>+</sup> 전환<sup>\*</sup>을 위해 품목별·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

\* 수산식품 수출은 '20년부터 지속 성장하였으나, '23년은 전년대비 4.6% 감소

- 수출 1위, '김'은 수출 영토 확장(130개국), '24년 수출 8억불 달성
- 수출 2위 '참치'는 해외어장 확보 등으로 '24년 수출 6억불 달성
- 굴·전복·넙치·어묵 등 유망품목은 품종 개량 등 기술 혁신, 물류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여 '수출 1억불 스타품목'으로 육성

\* 중국 내륙 콜드체인 구축(40개사), EU 해조류 시장 개척, 아세안 활수산물 수출

- 수산식품 수출 '새싹 - 초보 - 강소' 등 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

\* (새싹기업) 단순 가공에서 고부가 간편식, 즉석식품 제조업체로 전환 지원(12억원), (수출바우처) 포장디자인, 수출 검사비, 국제인증, 마켓테스트 등 지원(77억원)

- 블루푸드테크펀드(200억원), 세컨더리 펀드(150억원) 조성 등 민간투자 확대

□ **수산물 『유통구조 개편』으로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.**

- 新 유통 트렌드를 감안, 도매시장 재생을 위한 기능 재정립 등 수산물 유통 제도·법령 재정비(「수산물유통법 개정」, '24)

- 민간 참여 이력제 본격 실시, 수산물 총 생산량의 15%까지 이력 관리

- 마트 등 민간 자체관리 제품도 정부 기준 충족시, 공식 이력제품으로 인정

- 대도시 인근, 도매시장 등 도심형 유통가공센터<sup>FPC</sup> 설립 추진(3개소 공모)

-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('24), 저온·친환경 위판장 5개소 조성

- 수산가공업 스마트(IoT·자동화 등) 전환 테스트베드 조성(2개소)

\* 전북 군산 '24년 착공 → '25년 완공 / 경북 영덕 '24년 실시설계 → '26년 완공

## 6 [균형발전+] 해양 레저 ·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### □ 『해양레저 기능 통합, 대형화』로 모두가 즐기는 관광 거점을 만들겠습니다.

- 10여개로 분산된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('24)
- 개별 인프라 위주 해양레저 사업을 권역별 대형 프로젝트로 전환
  -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착수('24년 마스터플랜)
  - 부산·경남·전남 관광자원을 연계,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
    - \* (부산) 도심형 문화·엔터테인먼트, (경남) 글로벌 마리나허브, (전남) 해양 치유 허브
  -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연계,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
    - \* (충청권) 가로림만 공원('24년 타재), (경상권) 포항 호미반도 일원, (전남권) 여지만·순천보성 등

### □ 『해양신산업 성과 창출』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합니다.

- 해양바이오는 상용화 유망분야 집중 지원, 권역별 거점 조성\* 등을 통해 국내 시장규모 2배 확대('21년 6천억원 → '27년 1조 2천억원)
  - \* (중부) 서천('24년 준공), (서남부) 완도('24년 착공), (동부권) 포항('24년 설계)
-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해외 수주를 지원하여 수주액 6천억 달성('24)
  - \* 해양플랜트서비스 수주 실적(억원) : ('22)907 → ('23)1,839 → ('27)8,000(목표)

### □ 전국에 『해양교육·문화 거점 구축』, 미래 바다시민을 키워 가겠습니다.

- 처음으로 공식 교육과정에 해양 교과목 신설('24), 교육현장 보급\*
  - \* '24년 완도수산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 고교 → 전국 단위로 순차 확산
  - 교육현장에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해양교과목 활성화방안 수립('24.上)
-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('24.下)으로 전국 2시간권 해양문화시설 구축
  - \* (既 운영) 부산, 울진 / (건립 예정) 인천('24.下), 청주('25), 완도(예타 추진)

## 7 [글로벌+] 국제사회 기여 확대, 해양영토 주권 확립

### □ 『국력에 맞게, 국제사회 기여』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글로벌 가치 실현, 수혜국 역량 강화를 위해 ODA 지원 1.5배 확대
  - \* 해양수산 ODA 지원 규모 : ('23) 287억원, 30개 사업 → ('24) 436억원, 39개 사업
  - 해양데이터 센터 구축, 해기사 역량강화, 양식연구소 설립,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, 해양플라스틱 저감 등 사업 다각화
- 우크라이나 주요 항만 재건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('24.12)
  - \* 마스터플랜 수립 → 항만별 타당성 조사 → 유무상원조(ODA·EDCF) 연계 지원
- 국제 고위급 협의체 유치\*를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아젠다 주도
  - \* Our Ocean Conference : 미 국무부 주도('14~), '25.3, 한국 개최 확정
  - UN Ocean Conference : UN 주도('17~), '28년 한국 유치 추진

### □ 『우리 해양영토 주권』을 확실하게 확립하겠습니다.

-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확대
  - \* 현재 영해기점무인도서 13개만 관리 중 → 최외곽 유·무인도 부속도서까지 포함
- 기관별로 상이한 도서 산정기준 합리화, 국가 공식 도서통계 생산
- 서해 경계미확정 수역 위성 모니터링(4회), 환경조사(2회) 등 대응 강화
- 남해(이어도)·서해(소청·가거초)에 이어 동해 과학기지(왕돌초) 구축('24년 착공)

### □ 『국가 어업주권』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- 어업관리 조직 강화, 무인항공기 3기 도입('24.下) 등 인프라 확대
-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해 모든 중국어선 AIS 설치·작동 의무화('24~)
  - \* 제23차 한·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한·중 양국 간 합의 완료





## 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

#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

민생 안정 | 역동 경제 | 균형 발전

## 01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

### 안심식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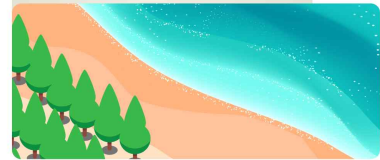
- 수산물 물가 안정
- 방사능 관리 강화

### 어업인·어촌



- 어업인 경영 안정
- 어촌·연안 활력 제고

### 환경·안전



-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
- 사고·재해 없는 바다

## 02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

### 물류혁신



-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,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
-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, 해양모빌리티 선도국 도약

### 수산업혁신



- 수산업 생산구조 혁신 → 미래세대 기회
- 수산식품 수출 플러스 전환

## 03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

### 지방시대



- 권역별 레저거점, 신산업 육성
- 전국 해양 교육·문화 거점

### 글로벌



- 국제사회 기여 확대
- 해양영토·어업 주권 확립

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1

#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

## 국민 안심·안전 식탁을 만들겠습니다



- 선제적·종합적 물가안정 조치  
- 정부비축 및 공급확대
- 수산물 할인행사 매월 실시  
- 최대 50% 할인  
(설 명절 등 최대 60%)

### 수산물 물가 관리



- 해역 모니터링 확대  
- 국내 200 → 243개  
- 공해상 8 → 18개
- 국내 수산물 검사 확대  
1.2만 → 1.8만건

### 해역·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

## 어업인·어촌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



- 수산정책자금 3.4 → 4.1조원
- 양식비교세 한도 3 → 5천만원
- 소규모어가 어선원  
직불금 인상 120 → 130만원
- 전기요금 가구당 44만원 지원

### 어업인 경영 지원 대폭 강화



- 어촌·연안활력대책 수립
- 100개 어촌 인프라 개선
-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
- 어복버스, 섬 닥터
- 소외도서 20개 여객지원

### 어촌·섬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

## 깨끗하고, 재해·사고 없는 바다를 구현하겠습니다



- 해양쓰레기 마이너스 전환  
- 발생(14.5만톤) < 수거(15.5만톤)
-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 
- 해양기후변화 전담조직  
- 해양보호구역 추가지정

###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 전수



- 해양사고 인명피해  
50% 저감
- 연안지역 완충공간 조성,  
국민안심해안 20개소

### 재해·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



## 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2

#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

### 세계 최고 물류서비스로 수출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



· 부산항신항, 진해신항 중심 스마트메가포트 구축

· 물류 생산성 20% ↑  
완전자동화항만 최초개장

#### 스마트 메가포트



· 세계 4번째 해상수송력 1억톤

·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 신규투입

· 예멘 반군 사태 등 물류난 선제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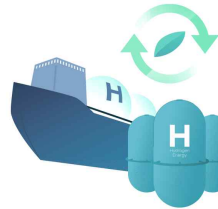
####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 구축



· '미주' 항만-내륙물류센터 4개소 신규 확보

· 신흥시장 '베트남' 물류센터 개시

####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



· 친환경선박 전환율 20% 조기달성 지원 확대

· 선박 위치정보 오차 대폭 축소 10M → 5cm

####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

### 혁신·개방으로 수산업의 미래수출 산업화하겠습니다



· 불합리한 어업규제 120건 철폐

· 전체 어획량 50% TAC 관리

· '어선은행' 시범사업 청년 신규진입 지원

#### 규제혁신·디지털화로 어업 혁신



· 김 8억불, 참치 6억불 달성

· 굴,전복,어묵 등 수출 1억불 스타품목 육성

#### 1억불 수출품목 6종으로 확대



·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→ 60조원 연어시장 진출

· 양식장 10개소 임대, 진입장벽 완화

#### 스마트화·개방으로 양식업 혁신



· 수산물 생산량 15%까지 민간주도의 이력 관리 확대

·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착공, 저온·친환경위판장 조성

· 도심형 FPC 조성(3개소)

#### 수산물 유통구조 개편

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3

#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

**해양 레저·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**



- 남해안해양레저 관광벨트,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
-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

**해양레저 기능 통합·대형화**



- 해양바이오 상용화 집중지원
- 해양플랜트 해외수주액 6천억 달성

**해양신산업 성과 창출**



- 최초 '해양과목' 공식 교육과정 도입
- 전국 2시간권 해양문화시설 구축,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

**해양교육·문화 거점 구축**

**국제사회 기여 확대·해양영토 주권 확립하겠습니다**



- 해양수산 ODA 1.5배 확대 (436억원)
-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

**국제사회 기여 확대**



- 전체 영해기점 23개 관리 강화
- 3면 해양과학기지 구축 - 동해과학기지 착공

**우리 해양영토 주권 확립**



- 조직강화, 무인항공기 3기 확보
- 모든 중국어선 AIS 설치 의무화

**국가 어업주권 대폭 강화**

##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민생 안정

매월 **50%**

수산물 할인 행사

**1.8**만건

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

**5**억원씩

어업인·법인 융자한도 상향

**5**천만원

양식어가 소득·비과세 한도

**44**만원

전기료 인상분 보조 지원

**100**개

어촌 경제·생활인프라 개선

**20**개소

교통 소외도서 여객 지원

**연중**

섬 지역 택배비 지원

##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

**국내 최초**스마트항만 개장  
(부산항신항 2-5단계)세계 **4**번째

해상수송력 1억톤 달성

목표 **20%**

국내선박 친환경선박 전환율

**5**cm

선박위치정보 오차범위 축소

**50%**TAC 관리 비율  
(전체 어획량 대비)**60**조 규모스마트양식클러스터  
연어 시장 진출수산물 **6**종

수출 1억불 달성 목표 품목

목표 **15%**

수산물 이력제 관리 물량

##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

**남해안**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 
(부산-경남-전남)목표 **6**천억

해양플랜트서비스 해외 수주

**최초 신설**

교육 현장에 해양교과목 신설

전국 **2**시간권

해양문화시설 구축

**1.5**배

해양수산 ODA 규모 확대

**100%**

전체 영해기점 특별관리

**3**면해양과학기지 구축  
(남해·서해에 이어 동해까지)**ALL**모든 중국 어선  
AIS 설치 의무화